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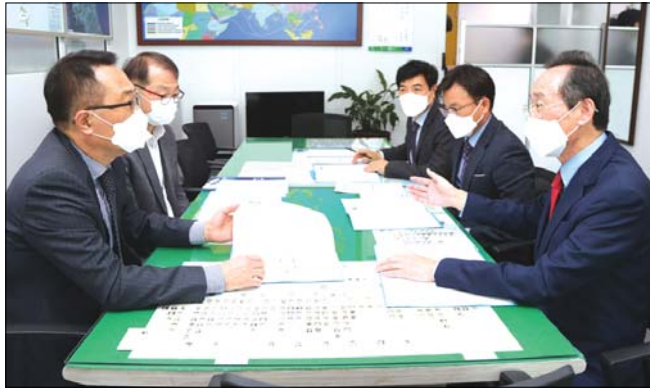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추진 4개 사업,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으로”

송하진 도지사, 국토부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건설 등 반영 요청

도, 내달 한달간 도정 역량
예산 확보활동에 ‘최우선’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전북이 추진하는 4개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전북이 추진하는 4개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요구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만 반영됐고,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사

업으로 분류됐으며,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은 미반영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새만금항

인접철도 및 장항선 등과 연계해 아시아 농생명벨트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완주산단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1.4km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전주에서 진안, 무주를 거쳐 경북 김천을 총연장 101.1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하는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으로,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검토대상에 분류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도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 2016년도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에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돼왔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새만금에서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경제의 중심축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황해 경제권의 물류수송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호·영남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날 송 지사는 “공청회 발표안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는 4개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분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동

서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부처 예산안 확정시기가 한 달여 남은 5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예산특별활동 기간으로 설정해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방문에 이어, 5월 4일에도 국토부 농식품부, 5월 10일에도 문체부, 해수부 등을 연이어 방문할 계획이다.

또 5월 6일에는 최훈 행정부지사, 17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지휘부가 총출동해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3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체계도 본격 가동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유호성 기자



바른 땅 스마트 지적 조성 '총력'

책임수행기관 제도 지원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위해

최훈 행정부지사, 현장행정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27일 '지적 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읍시 신대인3지구(1,567필지, 430km)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훈 행정부지사와 김철수 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장), 김대중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등이 함께, 정읍시의 사업추진 현황, 일일지측량 및 드론 촬영 등을 통한 지적 재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GIS·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지적측량과 토지조사용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이날 최 부지사의 현장 방문은 오는 2022년부터 본격화되는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1X와 민간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경쟁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는 제도로, 사업지구별 일일지측량과 조사 공정은 민간 업체가 전담하고, 난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은 1X가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 부지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매년 사업량이 증가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를 통해 필지 소유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감소로 이웃 간 갈등 완화, 특히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호성 기자

대규모 자동차 도장기업 새만금에 '등지' 튄다

새만금개발청 - 평강B.I.M, 전착도장 설비 구축 협약

국가산단 내 6만5000㎡ 규모 용지에 323억원 투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7일 (주)평강B.I.M과 새만금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착도장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신현승 군산시 부시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이성수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최길호 (주)평강B.I.M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주)평강B.I.M은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1공구) 내 6만5,000㎡ 규모의 용지에 323억 원을 투자해 전착도장과 특장차 제조 등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특장차 분야의 기술향상은 물론 수출 증대와 새만금 산단 내 미래차 집적화 단지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미래차 분야를 전라산업으로 선정해 관련 제조 기업·연구기관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 특장차, 전장부품 등 자동차 관련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주)평강B.I.M은 2000년에 설립돼 국내 최초로 40톤 규모의 레커 차량을 개발하는 등 특장차(구난 및 견인차 등) 제조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대



새만금개발청은 27일 (주)평강B.I.M과 새만금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착도장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신현승 군산시 부시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이성수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최길호 (주)평강B.I.M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자동차와의 MOU 체결과 특장차협회의 등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주)평강B.I.M이 새만금공장에 도입하는 전착도장은 수용성 수지 도료가 담긴 탱크(+) 속에 금속제의 피도장물(-)을 넣고, 피도장물에 전류를 흘려 그 표면에 도막을 형성시키는 도장 방법으로, 도장면이 균일하고 방청효과가 뛰어나 자동차의 품질 고급화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지역에 도입하는 전착도장 설비는 소형 산업 자재부터 적재함, 증장비 등 대형자재까지 처리가 가능해 독자적인 설비를 갖추지 못한 다양한 기업들의 전착도장 수요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투자를 환영하며, 새만금산단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기가 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충모 청장은 “특장차 제조 전문기업인 (주)평강B.I.M의 투자를 환영하며, 앞으로 새만금에서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전북도·군산시 등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새만금 산단에 조성되는 미래차 집적화단지가 전기차·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Paper Road!

전주페이퍼가 종이의 세계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종이시장의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종합제지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